



부디 편히 쉬시기를..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리니

노조, 故 조계창 조합원 추모기금 적립키로 “추모사업 아이디어를 모읍시다”



고 조계창 차장이 사고를 당한 엔지-투먼간 302국도 변에 국화가 놓여 있다. 조 차장이 탄 차량은 왼쪽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고 조계창 조합원의 마지막 모습. 사고 직전인 1일 오후 엔지에서 김병민 연변대총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선양(瀋陽) 특파원으로 재직하다 취재 활동 도중 순직한 고(故) 조계창(36)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과 사우들의 깊은 애도 속에 영면했다.

노동조합은 생전 조합 활동에도 열성적이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 조계창 조합원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다양한 추모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조는 우선 조합원들의 성의를 모으는 차원에서 소정의 ‘노동조합 위로금’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한편 매월 조합 집행비 중 일정액을 적립해 내년 1주기 추모 시점에 맞춰 유족 지원 또는 추모사업에 대비해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금으로 지급될 조합 위로금도 우선 기존 조합비 가운데 여유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모활동 방안을 결의했다.

사내에서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고인의 유해가 빈소인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이후 조합원과 사우들의 조문 행렬이 잇따르면서 많은 조합원과 사우들이 적극적으로 추

모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사내에서는 이제 고인을 보낸 시점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 다한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장례를 치르느라 고민했지만 고인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연합뉴스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 형태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게 사내중론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연합뉴스 기자로서, 또 특파원으로서 두고 두고 되새겨 봐야 할 표상이 될 만큼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한 고인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사내에 추모비 또는 흉상을 세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은 물론 현재 사우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고 조계창 조합원의 동기(20기)들은 고인의 유고집을 기획, 출간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동기회는 이번 장례 과정에서 어떤 사우들보다도 열성적으로 고인을 추모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동기 대표 박진형 조합원은 “고인의 기사 만들 모은 단순한 유고집이 아니

라 고인을 평가하는 사외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곁들여 평전 수준의 문집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사우는 “조계창 기자상(賞)을 제정해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가 고인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이디어를 전했다.

마침 고 조계창 조합원은 지난 1958년 타이완 해협 분쟁을 취재하다 순직한 한국일보 최병우 기자의 기자 정신을 계승한 최병우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창 기자상이 제정된다면 연합뉴스 사내 뿐만 아니라 전체 기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추모 사업 방안이 들어오는대로 취합해 회사 측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조합 자체의 역량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채로운 추모사업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 노조 측에 건

의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성연재 노조 사무국장과 박진형 20기 대표를 추모사업 전담위원으로 지정해 향후 추모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내 의견을 수렴토록 할 방침이다.

회사는 고 조계창 조합원의 순직과 관련해 특파원 취재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뉴스국에서 특파원 험지 취재 등과 관련해 여러 대책이 마련됐지만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안전 대책에는 보험 뿐만 아니라 현지 차량 지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험지 취재 보험은 고 조계창 조합원 순직 이전에도 이미 추진되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취재시 특파원을 포함한 사원 안전이 최우선 원칙임을 고려해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故조계창 조합원 사고수습기

“이렇게 황량한 땅에서 잠들다니...”

고 조계창 조합원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도착한 연지공항.

황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공항에서 내려 시신이 안치된 호스피스 병원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낌이였다.

‘이렇게 황량한 중국땅에서 계창이 가 목숨을 잃다니...’

숨돌릴 틈도 없이 유가족이 시신을 확인하고 후다닥 빈소가 차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지 한인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한인회 소속 한인들이 발벗고 나서 수십명이 들락거리며 조문을 하고 빈소를 차리고 먹을 것을 차려왔다.

알고보니 중국은 사망하면 바로 화장하는 습속이 있는데 고 조계창 조합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이 확인도 하기 전에 화장될 뻔 한 것을 한인회에서 시신을 옮겨와 호스피스병원으로 모시고 왔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바로 공안당국에 가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는데 이역만리에서 횡사한 후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나 확인하는 것이 임무라 판단하고 김홍태 부장과 함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한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중국 공안당국이 훨씬 더 사고와 사인을 판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이 느껴진 부분이다.

“검안으로는 뇌진탕 등 직접적인 사인을 가리기 힘들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것을 권하고 싶다” 이것이 검안을 담당했던 법의(法醫:의학경찰관)의 말이었다.

가족들은 형사적인 잘못을 물고 싶은 마음은 없음을 강조하며 부검에 반대,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시신을 그대로 한국으로 모셔오기는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에게 시신을 모셔오기 위해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컸다.

책임보험은 제 3자에 대한 것만 유효했다. 무슨말이고 하니 자차와 그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보험은 없었다. 즉 보험은 있돼 무보험과 마찬가지로란 뜻이다.

잠 통탄할 노릇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차주와의 보상협의뿐이다.

차주가 아내를 데리고 빈소로 모습을 나타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고 조계창 조합원의 아버지는 차주의 손을 잡고 울었고 차주도 눈물을 흘렸다. 그레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생긴 이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우리가 나서긴 좀 그렇고 가족이 나서기도 좀 그랬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니... 이때 한인회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한인회 관계자는 “5년후 쯤이면 당신들은 그래도 재기할 수 있고 그래도 돌이 남지 않느냐?”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사람을 되찾을 수 없지 않은가?”라는 말로 차주를 설득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화장장을 알아보고.. 첫날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펄펄 내린다.

아침 식사도중 잘못하면 현장에 못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은 내가 무조건 가야한다고 우겼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도 랜드로버를 빌리더라도 현장은 갔다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밝고 해가 뜨니 곳곳에서 사고가 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다행히 빙판길에도 차는 다녔다.

김홍태부장과 나는 공안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유가족은 승합차에 타고 빙판길을 달려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빈소에 있던 조화에서 국화 몇송이를 챙겨 차에 탔다.

현장은 그야말로 심플하기 짝이 없는 죽 췌는 국도변이었다.

완전히 아래로 내려간 언덕 아래에는 줄지어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가 언덕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만 나무를 부딪히고 만 것이었다.

가족들은 또다시 오열했다.

현장에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범퍼가 나뒹굴고 있었다.

하필이면 나무를 들이받는 바람에.. 하필이면 조수석에 앉는 바람에...

빈소로 돌아온 우린 이날 오후 화장장으로 향했다.

3면에 계속



고 조계창 차장의 사고 현장을 중국 공안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왕복 2차선 국도에는 전날 내린 비로 빙판길로 변해 있었다.



고 조계창 특파원이 수출 길 막힌 북한산 대게가 중국 연지(延吉)의 서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을 순직 당일 보도하면서 내보낸 마지막 취재 사진.



연지사 공안국출입경접대대청에서 열린 사고수습 관련회의에서 유가족과 공안당국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미망인의 마지막 손길... 안경창에 비친 눈물

☞2면에 이어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더욱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위치한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외길이었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커다란 중국식 대문이 서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관문 같은 느낌이였다.

우리는 조계창 차장의 시신을 싣고 그 관문을 통과해 바람부는 황량한 화장장으로 올라갔다.

“여보 이 사람.. 나를 두고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황량하기 그지없는 화장장에서 한줌 재로 변한 남편의 유해를 만드는 조계창씨의 부인 김민정 전 사우(20기로 입사했었다)

이 사진을 본 나는 무엇으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 망연자실해졌다.

사실 노조차원에서 현장을 살피기 위해 연길로 급파됐던(그야말로 급파 맞다. 인천의 집으로 가서 여권갖고 오고 중국대사관 가서 비자를 2시간만에 만들었으니..) 나는 우리회사에서 겪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이를 기록해 남기려고 노력했다.

여느 취재현장과는 달리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내 눈 앞에서 오열하는 유가족은 여느 취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

바로 한 회사에서 한술밥을 먹던 후배의 가족

들이었던 것이다. 오열하는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돌보고 잔심부름도 해야하는 입장이였다.

따라서 이 사진을 찍은 순간도 파인더에 집중해서 집요하게 팔로우를 할 수는 없고 틸틈이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조사무실에서 사진을 한장한장 되돌아봤다. 한장의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때 아.. 김민정 사우는 화장을 끝내고 나온 남편의 유해에 손을 내뻗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보내는 길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육신을 태워 없앴으로 인해 남편의 형체는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 아닌가?

그야말로 한줌의 재로 변한 순간.

사랑하는 동생이 그 형의 유해를 손에 들고 눈을 감은 채 이역만리 연길땅의 화장장을 나서는 순간이다.

그 아무지고 발랄하고 애살있는 아내는 성큼성큼 나아가는 시동생의 뒤를 종종걸음으로 쫓았다. 시동생이 든 유해를 쫓으며 닭똥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남편의 유해에 손을 내뻗는 것이다.

그 닭똥같은 눈물은 그녀의 안경창에도 비칠만큼 굵었다.

그녀의 눈길은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표정이다.

그 표정에서 사랑이 툭툭 묻어 나온다.

이런 남편을 보낸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제 막 둘째를 낳았고 그놈 두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소리에 내 눈앞도 흐려졌다.



고 조계창 조합원의 동생 성우씨와 미망인이 중국 연지에서 화장을 끝내고 유해를 부여든 채 나오고 있다.

고 조계창 조합원의 생전 조합 활동 모습

고 조계창 조합원은 2005년 제18대 조합 집행부에서 교육부장을 지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조합활동을 했다.

조계창 조합원은 집행부 회의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당시 조합의 현안이었던 뉴스통신진흥회

설립 문제 등에 관해 조합원들의 견해를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당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회상한다. 사진은 조계창 조합원이 집행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와 2005년 4월 일본 유골감정팀의 분석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기사로 이달의 참글상 격려상

을 받았을 때 정재용 당시 노조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다.



이달의 참글상

8~10월 참글상 대상에 사회부 이세원 기자 “돈 봉투 시의원들, 재판 끝나고 소주나” 격려상엔 사진부 박지호 기자, 사회부 장재은 기자, 민족뉴스부 최선영·장용훈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는 2008년 8~10월 이달의 참글상 대상작으로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 의원들의 기막힌 추태를 보도한 사회부 이세원 기자의 ‘돈봉투 시의원들, 재판 끝나고 소주나..’를 선정했다. 또 참글상 격려상에는 사진부 박지호 기자의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사진 취재’와 사회부 장

재은 기자의 ‘서초구 학생들 3km만 걸어도 봉사활동 6시간’, 민족뉴스부 최선영, 장용훈 기자의 ‘간첩 원정화 북한내 행적 진술에 의문점’을 각각 선정했다.

이달의 참글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 격려상 수상자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노조 공보위와 기협 지회는 이와 함께 ‘2008년 올해의 참글상 대상’ 후보를 올 연말까지 접수한다. 올

해의 참글상 후보에는 이달의 참글상 대상작들이 모두 후보작으로 접수되고, 이와 별도로 참글상 수상작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참글상 제정 취지에 적합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사를 후보작으로 공모한다.

8~10월 이달의참글상 대상 수상소감

서울시 의원들 “100만원 받아놓고 식사하고 나면 남는게 없어”

동료 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은 김귀환 전 서울시 의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말해 내 귀를 의심케 했다.

‘과연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오후 공판도 지켜보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재판 시간보다 여유 있게 법정 입구에 도착했는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몇몇 시의원이 대화하고 있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많으면 의자 좀 더 갖다놓지...”, “시에서 예산 지원 좀 해준다 그래”

처음에는 그들의 거리낌없는 농담이 흥미로워 이를 메모하기 시작했지만 대화가 전개되자 더 이상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100만 원 받아놓고 (재판받으러 오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게 없다)”

나는 수습을 갖 떴고 광주에서 순환근무를 했는데 그때 알게 된 한 구의원은 ‘누가 밥 먹자고 하면 3천원짜리 구내식당에 가는 짝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조심스럽기 그지없던 그의 기억에 1인당 100만 원의 돈이 식사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의장 등의 상반된 모습이 오버랩되는 순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의 실상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법원에서 지켜본 어떤 피고인과의 구별됐다.

철없이 주먹을 휘두른 10대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공천장사’를 해 기소된 친박연대 국회의원, 이견희 전 삼성 회장 등 소위 권력과 부를 지닌 자도 법원 청사에서는 한결같이 몸가짐을 조심했는데 이들은 한 무리의 취객같은 인상마저 풍겼다.

재판이 시작되고 대화가 일단락되자 기사를 송고했고 주요 일간지와 방송이 관련 기사와 사실을 내보내는 등 시의원들에게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일 연합 기사가 포털 메인 화면에 뜨자 재판부 역시 휴정 중에 이를 알게 돼 경거망동을 따끔하게 지적했고 그들은 이후 탄 사람이 된 것처럼 자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건은 1심에서 김 전 의장이 징역 1년6개월을,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 대부분이 벌금 60만~80만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의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덧붙여지며 일단락됐다.

혹여 사회적 책임은 있으나 국회의원이거나 재벌 회장보다 상대적으로 미디어 감각이나 법정 경험이 부족한 시의원들이 ‘겉 없이’ 속내를 드러내 호되게 당한 것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별개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를 대표하는 의원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였다.

부족한 점이 많은 기사가 참글상에 선정된 것은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함을 보여야 할 기초의원이 지난해 전국을 휩쓴 의정비 인상 논란에 끊이지 않은 외유성 연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구태를 닦아가는 현실에서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에 상을 받아서 느끼게 되는 ‘감시견(Watchdog)’으로서의 책임감이 진짜 선물이라는 점에서 선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세원
사회부

올해 임금협상 기본급 2% 인상 타결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대안에도 합의

연합뉴스 노사는 지난 3일 2008년도 임금협상 본회의를 열어 기본급 2%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안에 서명했다.

협약은 현행 기본급의 2%를 정률로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 유효기간은 2008년 4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다. 임금 인상액은 소급분 형태로 지급된다.

노조는 앞서 실무협상에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액 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회사 측은 현재 경기 상황과 방송사 비상 경영 현황 등 언론계 전체 상황을 근거로 들어 노조 측 협상안에 난색을 표시했다. 조합원 설문조

사에서는 3~5% 인상과 5~8% 인상을 요구하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64%를 차지했다.

노사는 두 차례 실무협상 결과 조합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최소한도라도 기본급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접근, 2% 인상안에 합의했다.

한편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대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억 원 규모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0억 원을 추가 출연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였다. 따라서 향후 회사 후생복지비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도록 단체협약과 사규, 기금정관 등이 바뀔 예정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말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대와 관련해 회사 측에 양해 조항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회사와 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신의성실로 공동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2008년 임금협약서에 명시했다.



12월3일 7층 회의실에서 옥철 노조위원장과 김기서 사장이 2008년 임금협약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